

# 술어반복 선택의문문\*

이정식

(원광대학교)

**Lee, Jeong-Shik. 2010. Predicate-repeated Alternative Ques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8(2). 89-114. In this paper I introduce a new set of data on predicate-repeated alternative question in Korean, say, V-not-V question, and claim that this construction should not be treated by a bi-clausal analysis applying for a usual alternative question but be dealt with by a simple clause analysis. A variety of word orders observed in this construction reject the bi-clausal approach and further opt for the SVO hypothesis for Korean rather than the usual SOV hypothesis. In particular, I suggest that a kind of operator movement i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in question, thereby accounting for island effects as well. The results of this paper lend support for the universal specifier-head-complement order initiated by Kayne (1994) and help eliminate the head-parameter, thereby reducing computational complexity.

**Key Words:** predicate-repeated alternative question, simple clause analysis, SOV hypothesis, SVO hypothesis

## 1. 서론

본 논문은 아직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국어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 현상을 새로 소개하고 이 구문이 보이는 어순 변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예들이 전형적인 국어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다:

- (1) a.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a'.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

\* 본 줄고의 개선을 위해 유익한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혹 어떤 잘못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몫임을 밝힌다.

- b. 너는 가니 안 가니?
- b'. 너는 갔니 안 갔니?
- c. 너는 이 옷 좋아 안 좋아?
- c'. 너는 이 옷 좋았니 안 좋았니?
- d. 순이는 예뻐 안 예뻐?
- d'. 순이는 예뻐니 안 예뻐니?

이 선택의문문에 대한 적법한 답은, (1a)를 예로 들면, 좋아해 또는 안 좋아해이다.<sup>1)</sup> 그래서 이 구문은 예 또는 아니오를 답으로 요구하는 아래의 '예/아니오 의문문'과는 다르다.

(2)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인 '일반 선택의문문'과 더 비슷하다.

(3) 너는 이 옷 좋아하니 혹은 너는 이 옷 안 좋아하니?

위 (3)에서 등위접속사 혹은이 오는 것이 (1)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과 다르고, 후행절에 선행절과 동일한 주어와 목적어가 나와 완전한 절을 형성하는 것도 달라 보인다. 대답의 차이에서 보듯이,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예/아니오 의문문'과도 다르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것은 이 구문이 (3)과 같은 완전한 '일반 선택의문문'에서 유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별도의 구문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제 2 절에서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의 체현상을 살펴보고 이 구문의 가능한 어순변이를 살펴볼 것이다. 제 3 절에서는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에 대한 쌍절(bi-clause)

---

1) 이 구문은 중국어의 소위 A-not-A (A: 술어) 의문문과도 일면 흡사하다 (예, Huang 1982, Hagstrom 2006):

- (i) a. Ni xihuan bu xihuan zhe ben shu?  
you like not like this book  
'You like or dislike this book?'
- b. Ni xi bu xihuan zhe ben shu?

그러나 국어에서 반복되는 술어는 모든 굴절요소가 다 함께 나오는 술어복합체(V-T-C)인 반면, 중국어에는 굴절요소가 빈약하여 (ia)에서처럼 단순히 동사(V)만 또는 (ib)에서처럼 동사의 일부 음절만 반복되어 나타나 보인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 구문은 예상과는 달리 쌍절로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남은 대안으로 단일절(simple clause) 분석이 대두 되는데, 제 4 절에서는 국어의 기본 어순에 대하여 오랫동안 가정되어 왔던 SOV 가설보다는 근래 일각에서 새롭게 주장되는 SVO 가설이 (Koopman 2005, Lee 2007a,b, 2008a,b,c,d,e, 2009) 이 구문의 어순변이를 보다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지정어-핵-보어의 범어적 SVO 기본어순을 제안한 Kayne(1994)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에 따라 핵매개변인(head parameter)을 없애 연산상의 복잡성(computational complexity)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의 국어의 구구조 형성이나 동사의 형태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2.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의 제 현상

### 2.1 단문에서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

위 (1)에서 동사나 형용사 술어복합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뒷부분의 술어 앞에 부정어 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예들을 살펴보겠다:

- (4) a.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안 좋아했니?  
 b.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하니?  
 c.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 (1a'))

반복되는 술어는 그 시제 형태가 (예, 좋아했니 (V-Tense-Mood)) 반드시 동일한 술어복합체이어야 한다.<sup>2)</sup> 또 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두 술어가 부분적으로만 동일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sup>3)</sup>

2) 한 가지 이형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 (i) a. 너 스케이트 탈 줄 아니 모르니?  
 b. \*너 스케이트 탈 줄 아니 안 아니?

이것은 알다의 부정형이 \*안 알다가 아니라 모르다라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예상되는 것이다.

3) 반면 중국어에서는 fn. 1 (i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용된다.

- (5) a. \*너는 이 옷 좋아 안 좋아하니?
- b. \*너는 이 옷 좋아 안 좋아했니?
- c.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안 좋아?
- d.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

국어에는 다음에 예시된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부정형이 존재하는데, 소위, (6a)의 단형부정형과 (6b)의 장형부정형이다.

- (6) a. 너는 이 옷 안 좋아한다.
- b. 너는 이 옷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논의하는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sup>4)</sup>

- (7) a.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 (1a))
- b.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니?

다음의 대조는 술어 반복이 조동사가 아닌 본동사에 국한되는 것을 보여 준다:<sup>5)</sup>

- (8) a. 철수가 편지를 찢어 버렸니 안 버렸니?      (버리다(throw): 본동사)
- b. \*철수가 편지를 찢어 버렸니 안 버렸니?      (버리다(perfective): 조동사)
- c. 철수가 편지를 찢어 버렸니 안 찢어 버렸니? (버리다(perfective): 조동사)

그리고 뒷부분의 부정형 반복술어는 바로 부정어만으로 대체될 수 있다:

4) 그러나 어떤 술어는 장형부정만 취한다.

- (i) a. \*너는 순희를 사랑했니 안 사랑했니?
- b. 너는 순희를 사랑했니 사랑하지 않았니?

여기서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단형부정형에 집중하려고 한다.

5) 그러나 -ㄹ 수 있다(can)와 같은 서법 조동사는 (ib)에서처럼 일부가 반복에 참여하기도 한다.

- (i) a. 너 잡채 할 수 있니 할 수 없니?      (\*너 잡채 할 수 있니 안 할 수 있니?)
- b. 너 잡채 할 수 있니 없니?           (\*너 잡채 할 수 있니 안 있니?)

- (9) a.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아니니?
- b.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아니니?
- c. 너는 가니 아니니?
- d. 너는 이 옷 좋으니 아니니? (cf. \*좋아 아니니?)
- e. 순이는 예쁘니 아니니? (cf. \*예뻐 아니니?)

이것은, 예를 들어, ...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의 연속체에서 후행하는 술어가 선행하는 술어와 동일한 경우 축약된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2.2 복문에서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내포절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 (10) a. 나는 [네가 딸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 b. 나는 [네가 아침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궁금하다.
- (11) a. [그녀가 딸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불분명하다.
- b. [그녀가 아침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불분명하다.
- (12) a. [내가 너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 b. [내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13) a. 나는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누가 ‘who’)
- b. 너는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하니? (누가 ‘who’)

흥미롭게, 논의하는 술어반복 의문문은 소위 섬효과(island effects)를 보인다:

- (14) a. ??너는 [[너를 아는 모르는] 사람들을] 좋아하니?
- b. ??너는 [[순희가 너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하는] 소문을] 들었니?
- c. ??너는 [[네가 미역국을 먹고 안 먹은] 것들] 기억하니?
- d. ??[내가 너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더 중요하니?
- e. ??너는 [영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때문에] 조바심 났니?

이러한 사실은 모종의 이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10)-(13)에서는 의문의 범위가 내포절 내에 있으므로 ((13b) 제외), 즉 섬 내부에 있으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14)에서는 이 추정되는 이동이 섬 밖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섬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6) 뒤에서 다시 이를 논의할 것이다.

### 2.3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의 제약

논의하고 있는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앞의 술어에 부정형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7) 8)

- (15) a. ?\*너는 이 옷 안 좋아하니 좋아하니?
- b. ?\*너는 안 가니 가니?
- c. ?\*너는 이 옷 안 좋아 좋아?
- d. \*순이는 안 예뻐 예뻐?

역시 앞부분의 술어는 부정어만으로 대체될 수도 없다.

- (16) a. \*너는 이 옷 아니니 좋아하니?
- b. \*너는 아니니 가니?
- c. \*너는 이 옷 아니니 좋아?
- d. \*순이는 아니니 예뻐?

위의 (9)에서 본 바와 같이 반복된 술어의 축약은 순행적인(forward) 것이며 (16)에서처럼 역행(backward) 축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에서처럼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부정극어를 취하지 못한다.

- (17) a. \*너 아무것도 먹었니 안 먹었니? (아무것도 ‘anything’)
- b. \*아무도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아무도 ‘anyone’)

6) 이런 점에서 국어의 의문사첨(Wh-island) 효과는 (13b)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미미하다.

7) 국어의 술어반복 의문문은 영어의 부가의문문과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아래 fn. 14도 참고), 긍정형과 부정형이 병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러나 (15)의 비문법성은 (ib)와 비교해 볼 때 영어와는 분명 대조적이다.

(i) a. You like this book, don't you?  
      b. You don't like this book, do you?

8) 한 심사자는 (15)의 예들이? 정도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필자의 소견으로 부정-긍정 순서의 술어 반복형은 본 줄고에서 논의하는 순수한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아니라고 본다. 혹 어떤 특수한 제한된 맥락에서 이러한 예들이 (다른 종류의 구문으로서) 수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대조도 흥미롭다.

- (18) a. 너 뭐 먹었니 안 먹었니? (뭐 'something')  
 b. \*너 뭐 먹었니 안 먹었니? (뭐 'what')  
 c. \*누가 미역국 먹었니 안 먹었니? (누가 'who')

즉 부정명사구(indefinite NP)는 (18a)에서처럼 허용이 되나 의문사구(wh-phrase)는 (18b,c)에서처럼 허용이 안 되는 대조를 보인다. (18b,c)의 의문사구 의문문은 뭐 'what' 와 누구 'who'에 해당하는 대상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술어에 대하여 양단간에 선택을 중용하는 '술어반복선택의문'과는 동일한 한 맥락에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9)</sup> 즉, (18b,c)에 대한 다음의 답은 적법하지 않다; 선택평서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19) a. \*나 미역국 먹었다 안 먹었다.  
 b. \*철수가 미역국 먹었다 안 먹었다.

다음 대조는 더 흥미롭다:

- (20) a. 그는 누군가를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누군가 'someone')  
 b. \*누군가가 그를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누군가 'someone')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activity)나 과정(process) 등에 연루된 주어는 긍정술어든 부정술어든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부정명사구(indefinite NP)가 아닌 한정명사구(definite)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들도 더 살펴보자:

- (21) a. \*넌 단지/오직 한 사람만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b. \*그는 분명히 너를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c. \*너는 결국 미국에 가니 안 가니?

9) (18c)의 단문과 (13b)의 복문의 내포질은 서로 문법성에서 대조를 보인다. (13b)의 내포질의 주어가 의문사구(wh-phrase)이더라도 (18c)의 단문과는 달리 허용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다음 문장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i) 나는 [순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오직*, *분명히*, *결국* 등의 단어들은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에 쓰일 수 없다. 이들 부사요소들은 의미적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양단간에 하나를 선택한 것을 전제로 이 의문문에 참여하는데, 위의 예들에서는 이 선택이 아직 열려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적 제약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2.4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의 어순변이

국어가 단문에서 어순이 비교적 자유스럽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술어반복 선택의문문’도 어순 변이가 예상된다. 다음은 이러한 변이의 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보여 준다:

- (22) a.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니?  
 b. ?너 먹었니 밥 안 먹었니?  
 c. ?밥 먹었니 너 안 먹었니?  
 d.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너?  
 e. ?먹었니 밥 안 먹었니 너?  
 d. 먹었니 안 먹었니 밥 너?  
 e. 먹었니 안 먹었니 너 밥?  
 f. 밥 너 먹었니 안 먹었니?  
 g. 너 먹었니 안 먹었니 밥?  
 h. \*너 밥 안 먹었니 먹었니?  
 i. \*너 안 먹었니 밥 먹었니?  
 j. \*너 안 먹었니 먹었니 밥?  
 k. \*안 먹었니 먹었니 너 밥?  
 l. \*안 먹었니 너 밥 먹었니?

위에서 반복된 긍정-부정 술어가 서로 인접할 때 최적법하다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인접성이 없는 (22b,c,e)의 경우 ? 정도로 조금은 문법성이 떨어지나 기본적으로 좋은 문장들로 여겨진다. (15)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긍정의 순서를 보이는 (22h-l)의 예들은 좋지 않다.<sup>10)</sup>

10) 그러나 화자에 따라 위의 어순 변이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3. 어순변이의 도출

#### 3.1 쌍절 분석의 문제점

(22)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 다양한 어순변이를 보이는데, 이들이 각각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3)과 같은 예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쌍절(bi-clausal) 분석이 대두된다.

- (23) a. [CP 너 이 옷 좋아하니] (혹은) [CP 너 이 옷 안 좋아하니]?  
 b. [CP 너 밥 먹었니] (혹은) [CP 너 밥 안 먹었니]?  
 c. [CP 너 순희 좋아] (혹은) [CP 너 순희 안 좋아]?  
 d. [CP 영화 예쁘니] (혹은) [CP 영화 안 예쁘니]?

위 구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접속사 혹은에 의해서 수의적으로(optionally) 연결된 등위접속절로 간주할 수 있다. 위 예문들은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조금 어색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문장들로 여겨진다. 자연 (24)에서처럼 동일 요소들이 생략되면, 아래 (25)와 같은 구문들이 파생될 것이다.

- (24) a. [너 이 옷 좋아하니] [너 이 옷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c. [너 순희 좋아] [너 순희 안 좋아]?  
 d. [영화 예쁘니] [영화 안 예쁘니]?

- (25) a. 너 이 옷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니?  
 c. 너 순희 좋아 안 좋아?  
 d. 영화 예쁘니 안 예쁘니?

여기서 (24a,b,c)에서 실은 삭제된 부분이, 즉 주어와 목적어가, 술어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핵어말(head-final) 구조를 감안한다면 후행절에서 술어복합체가 주어보다 상위로 (예, C) 상승한 후 주어와 목적어를 포함하는 구절 (예, TP) 전체가 삭제되는 수밖에 없다.

- (26) [너 이 옷 좋아하니] [CP [FP 너 이 옷 안 좋아하-] [C 안 좋아하니]]

물론 (24)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pro로 간주한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이동과 그 이동 후의 삭제는 필요 없을 것이다 (아래의 관련된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생략된 주어나 목적어 대신 pro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언급한다):

- (24) a. [너 이 옷 좋아하니] [pro pro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pro pro 안 먹었니]?  
 c. [너 순희 좋아] [pro pro 안 좋아]?  
 d. [영희 예쁘니] [pro 안 예쁘니]?

다른 한편으로 다음 (27)에서와 같은 변이형들이 있다는 것도 (28)에서와 같은 쌍절 분석을 지지해 주는 듯하다.

- (27) a. 너 이 옷 좋아하니 이 옷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c. 너 순희 좋아 순희 안 좋아?

후행절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음에서처럼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8) a. [너 이 옷 좋아하니] [너 이 옷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c. [너 순희 좋아] [너 순희 안 좋아]?

위 (27)의 예들의 한 특징은 동일한 목적어 명사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28)에서처럼 쌍절로 분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즉 결속조건 C 위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어순의 구문들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 (29) a. 밥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b.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너?

쌍절 분석 하에서 (29)의 예들은 (30)에서처럼 도출될 것이다.

- (30) a. [너 밥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b. [너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여기서 목격되는 것은 (29)의 어순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30)에서처럼 주어에 대한 역행삭제(backward deletion)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30a,b)에서 선행절의 생략된 주어를 단순히 pro로 간주된다면 역행대명사화(backward pronominalization)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어에서 최소한 병렬된 두 절 간에는 아래 (31a,b)에서처럼 역행삭제/역행대명사화는 일반적으로 실증되는 운용이 아니다.

- (31) a. \*철이가 밥을 먹었니? 철이가 국도 먹었니?
- b. \*영희가 밥을 먹었니? 철이도 밥을 먹었니?
- c. 철이가 밥을 먹었니? 철이가 국도 먹었니?
- d. 영희가 밥을 먹었니? 철이도 밥을 먹었니?

반면 (31c,d)에서처럼 순행(forward)삭제/순행대명사화만이 실증된다. 혹 (31)의 구문들이 등위접속 구문이 아니고 독립적인 문장들이어서 (31a,b)의 역행삭제/역행대명사화가 실행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의 등위접속구문들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 준다.

- (32) a. \*철이가 밥을 먹었고 철이가 국도 먹었니?
- b. \*영희가 밥을 먹었고 철이도 밥을 먹었니?
- c. 철이가 밥을 먹었고 철이가 국도 먹었니?
- d. 영희가 밥을 먹었고 철이도 밥을 먹었니?

따라서 (30)의 역행삭제/역행대명사화 접근이 그릇된 것이라면 (29a)는 선행절에서 구성소 [밥 먹었니]가 주어 위로 상승한 후 후행절의 주어가 순행삭제/순행대명사화를 겪어 유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밥 (안) 먹었니]는 핵어말 구조에서는 하나의 구성소가 아니므로 먼저 주어 너가 CP에 부가되고 다시 [CP 너 밥 (안) 먹었니] 전체가 절의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다시 언급할 것임):

- (33)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그러나 (29b)의 유도에는 불가피 선행절 주어에 대하여 역행삭제/역행대명사화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 (34) [[너 밥 먹었니][너 [너 밥 먹었니]]][너 밥 안 먹었니] 너 [너 밥 안 먹었니]?

이제 (29b)에 대한 또 다른 도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결국 쌍절 분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존하지 않는 역행삭제/역행대명사화가 적용되어야만 유도될 수 있는 다른 예들을 추가할 수 있다.

- (35) a.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너?  
 b. 먹었니 안 먹었니 밥 너?  
 c. 먹었니 안 먹었니 너 밥?

즉, (35)의 예들은 아래에 간략하게 표시한 (36)에서처럼 역행삭제/역행대명사화를 적용시켜야만 한다.

- (36) a.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너 [밥- [~~밥 안 먹었니~~]]]?  
 b. [[밥 먹었니] 너 [밥 [~~밥 먹었니~~]]][[밥 안 먹었니][밥 [너 [밥 [~~밥 안 먹었니~~]]]]]?  
 c. [[밥 먹었니] 너 [밥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너 [밥 [~~밥 안 먹었니~~]]]]?

여기서 핵어말 구조 하에서는 후행절의 술어가 하나의 구성소가 아니어서 단독으로 절의 앞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35c)를 위한 (36c)의 도출과정을 좀 더 소상하게 진술한다면, 먼저 주어와 목적어가 각각 CP에 부가 이동한 다음 CP-영역소 [CP 너 밥 (안) 먹었니]가 다시 절 앞으로 CP에 부가 이동한 후 하위의 복사물이 생략되어야 한다. (33)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연속적인 CP 부가 이동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도출과정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 가지 남아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후행절의 [안 먹었니]가 선행절 안으로 이동하고 후행절의 남은 요소들이 다 삭제되는 방법이다.

- (37) a.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너 [~~밥 먹었니~~] [너 [~~밥 [~~밥 안 먹었니~~]]]]?  
 b.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밥 [너 [~~밥 먹었니~~]]] [너 [~~밥 [~~밥 안 먹었니~~]]]]]?  
 c.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너 [밥 [~~밥 먹었니~~]]] [너 [~~밥 [~~밥 안 먹었니~~]]]]]?~~~~~~

그러나 이 경우 이동해 간 자리는 선행절의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를 성분통어(c-command) 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원하는 어순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 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37)에서와 같은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예들은 ((22h-1)의 예들 중) 이러한 이동에 대한 제약을 가시적으로 어기는 추가적인 예들이다:

- (38) a. \*너 밥 안 먹었니 먹었니?  
 b. \*너 안 먹었니 먹었니 밥?  
 c. \*안 먹었니 먹었니 너 밥?  
 d. \*안 먹었니 너 밥 먹었니?

위의 (38c,d)에서 [안 먹었니]를 포함한 CP-잉여소가 만일 전체 등위접속문 밖으로 이동해 나와 문두로 간 것이라면 등위접속구문계약(CSC, Ross 1967)을 어긴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컨대 핵어말 구조에 입각한 쌍절 분석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종용한다. 다음 제 4 절에서는 쌍절 분석을 포기하고 단일절 분석을 모색해 볼 것이다.

혹 (17)에서처럼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 부정극어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쌍절 분석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 (17) a. \*너 아무것도 먹었니 안 먹었니? (아무것도 ‘anything’)  
 b. \*아무도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아무도 ‘anyone’)  
 (39) a. [너 아무것도 먹었니] [너 아무것도 안 먹었니]?  
 b. [아무도 밥을 먹었니] [아무도 밥을 안 먹었니]?

즉 (39)의 선행절에서 부정극어 *아무것도*, *아무도*는 이를 인허하는 부정소와 동일한 절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부정극어 인허에 대한 동일절조건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쌍절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17a,b)의 비문 법성을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다음에 반복한 (18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문사구 뭐 ‘what’은 부정극어 처럼 부정소의 존재 여부에 민감한 것이 아님에도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에 나타날 수 없다.

11) 다른 예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23)에서 보는 쌍절은 (i)에서처럼 이들 두 절 사이에 휴지 #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ii)에서처럼 휴지는 수의적이다. 그리고 (1)에서 보는 ‘술어반복 선택의문문’도 (iii)에서처럼 두 술어 사이에 휴지가 수의적이다.

- (i) [너 밥 먹었니] # (혹은) [너 밥 안 먹었니]?  
 (ii) 너 밥 먹었니 (#) 너 밥 안 먹었니?  
 (iii) 너 밥 먹었니 (#) 안 먹었니?

따라서 쌍절 분석은 이러한 휴지의 수의성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b. \*너 뭐 먹었니 안 먹었니? (뭐 'what')

(40) [너 뭐 먹었니] [너 뭐 안 먹었니?]

쌍절 분석하에서 뭐 'what'를 포함하는 (40)의 각 절은, 부정극어의 경우와는 달리, 좋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체적으로는 나쁘다. 달리 말하면, (39a,b)의 한 절에서 부정극어 인허가 안 되므로 (17a,b)가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시 제 4 절에서 논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하는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 등위접속에 의해 형성된 쌍절이 아니라면 다음에서 보이는 쌍절의 특성을 여하히 포착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41) a. [너 이 옷 좋아하니] [너 이 옷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c. [너 순회 좋아] [너 순회 안 좋아?]

d. [영희 예쁘니] [영희 안 예쁘니?]

제 4 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 3.2 다른 쌍절 분석 재고: 다중관할 분석 및 전면이동 분석

쌍절 분석하에서 다음의 두 예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도출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22) f. 밥 너 먹었니 안 먹었니?

g. 너 먹었니 안 먹었니 밥?

Chung (2010)의 등위접속문에 대한 다중관할(multi-dominance) 분석에 의존한다면, (22f)와 같은 종류의 예는 좌측마디 상승(Left Node Raising)으로, (22g)와 같은 종류의 예는 우측마디 상승(Right Node Raising)으로 다룰 것이다.

(42) a. [너 \_\_ 먹었니] [pro \_\_ 안 먹었니? (이중관할) ==>

| \_\_\_\_\_밥\_\_\_\_\_ |

b. [밥 [너 \_\_ 먹었니] [pro \_\_ 안 먹었니?]] (좌측 상승)

c. [[너 \_\_ 먹었니] [pro \_\_ 안 먹었니] 밥?] (우측 상승)

다중관할 분석에서, 위 예들은 우선 쌍절이 등위접속된 구조를 이루며, 밥이 원래 선행절과

후행절의 공통 목적어로 배번집합 (Numeration)에 한 번만 등재되며 선행절 VP에 의해 관찰되는 동시에 후행절 VP에 의해서도 관찰되는 각 절의 V의 보어이다. 이 공통 목적어가 좌측 상승된 것이 (22f)이며, 우측 상승된 것이 (22g)이다.<sup>12)</sup> 위의 (22f,g)는 또한 전면이동 (Across-the-board movement)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다:

- (43) a. [밥 [너 밥 먹었니] [pro 밥 안 먹었니]]?  
           ↑\_\_\_<\_\_\_↓\_\_\_\_\_<\_\_\_\_\_↓  
       b. [너 밥 먹었니] [pro 밥 안 먹었니] 밥?  
           ↓\_\_\_\_\_>\_\_\_\_\_↓\_\_\_\_\_>\_\_\_\_\_↑

그러나 무엇보다도 왜 (22f,g)와 같은 좌치/우치 구문에만 위와 같은 특별한 운동들, 즉 다중 관찰에 입각한 좌측마디 상승이나 우측마디 상승, 또는 전면이동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Chung (2010)은 등위접속 구문에서 나타나는 좌측/우측마디 상승 구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면이동 분석보다는 다중관찰 분석을 옹호하였는데, Chung의 핵심 논지는 다음 예들에서 (Chung 2010:(13),(20b)) 보이는 복수표지 -들이나 명사구 내적 해석 (NP-internal reading)의 가능성은 이들을 성분통어(c-command)하는 복수 표현이 존재해야 성립한다는 것이며 이 복수성이 다중관찰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44) a. **열심히**들, **존**은 책을 읽고 **메리**는 논문을 읽었다.  
       b. **두 개의 다른 노래**를, **존**이 불렀고 **메리**가 녹음했다.

위에서 각 등위절의 주어는 단수이면서도 **열심히**들과 **두 개의 다른 노래**들은 이들 각각의 주

12) Chung(2010)은 공통 목적어가 좌측 상승 또는 우측 상승이 되는 이유는 제자리에서 이중관찰 되는 이 목적어가 원래 Kayne (1994)이 제안했던 종류의 어순선형화공리(LCA, linear correspondence axiom)를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22g)는 한편 술어 다음에 다른 성분이 오는 우치구문(right-dislocated sentence)이라고 볼 수 있는데, Chung(2009)은 이 구문을 쌍절 분석으로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예에서 우치구문의 맨 우측 술어 다음의 요소는, 우향이동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등위절의 가장 좌측의 요소이며 나머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i) 나는 먹었다 밥을. <== [나는 밥을 먹었다] & [밥을 [나는 밥을 먹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실은 (i)을 유도하는 데는 허용되지 않는 역행삭제/역행대명사화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Chung(2009)의 우치구문에 대한 쌍절 분석 제안은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22g)가 우측마디 상승에 의해 공통 목적어 **밥**이 (42c)에서처럼 우향이동한 것이라는 제안과는 서로 상치된다.

어에 의해서 이중관할 되므로 필요한 복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다중관할 분석에서는 (44b)에서 부르다와 녹음하다가 두 개의 다른 노래를 공통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존이 <a, b>의 두 개의 다른 노래를 불렀고, 메리가 <c, d>의 두 개의 다른 노래를 녹음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포착될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Chung (2010)은 전면이동 분석이 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44a)나 다음 (45)와 같은 예에서 복수표지 -들에 대하여 복수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이다.<sup>13)</sup>

(45) 존은 책을 읽고, 메리는 논문을, **열심히**들 읽었다.

그러나 두 분석 모두 (44a)의 예에서 부사가 이동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부사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되고 있다. 또한 (45)의 예에서 우측 끝의 **열심히**들 읽었다는 실은 하나의 구성소가 아니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VP로부터 이중관할 될 수 없으며 또한 전면이동을 겪을 수도 없다 (Park 2009).

다음 절에서는 문제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에 대하여 쌍절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대안이 모색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sup>14)</sup>

13) Chung (2010)이 지적한 복수성 확보의 문제는 아래의 제안을 고려한다면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Fox and Nissenbaum (1999)은 관계절 외치 현상에 대하여 가시적 양화사 인상(overt QR)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을 원용한다면 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는 각 등위절의 주어가 한데 있지 않아 복수를 이루지 못하지만 복수일치를 보이는 동사 *were*가 출현한다 (Baltin 2006):

- (ii) a. A man entered the room and a woman left who **were** similar.
- b. [[A man] entered the room] and [[a woman] left] ==> overt QR
- c. [[[A man] entered the room] and [[a woman] left] [~~A man~~] and [~~a woman~~]]
- ==> Merge relative clause, plural agreement
- d. [[[A man] entered the room] and [[a woman] left] [~~A man~~] and [~~a woman~~]]
- [who **were** similar] ==> (iia)

위의 (iia)에서 볼 수 있듯이, 가시적 양화사 인상에 의하여 [[A man] and [a woman]]과 같은 복수가 형성되어 *were*에 구현된 일치관계를 포착하게 된다. 따라서 (44a, 45)의 예들에서도 각 등위절의 주어가 가시적 양화사 인상을 하여 복수를 이룬다면 복수표지 -들을 충분히 인허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Lee (2010) 참고.

14) 한 심사자는 논의하는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의 부정형 술어 부분이 일종의 후보충어(afterthought)로서 부가의문문(tag question)으로도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음 (ia)의 예는 (ib)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 (i) a.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 b. Chelswu likes Yenghi, doesn't he?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후보충어란 기본적으로 절(clause)의 한 요소로 간주되지만 절 내의 제



## 4. 단일절 분석

### 4.1 SOV 가설: 핵어말 구조

먼저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 쌍절 분석에 의해 잘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결과는 이 구문을 단일절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도록 유도한다. 다음 예들을 다시 보자.

- (1) a'.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5) b. \*너는 이 옷 좋아 안 좋아했니?

만일 위 구문이 단일절이라면 술어의 반복은 최소주의(minimalism)에서 이동의 복사이론(copy theory of movement, Chomsky 1993, Nunes 2004)이 잘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최기용 (2003)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 (46) a. 선생님이 영희를 만나기는 만나셨다.  
 b. 선생님이 영희를 만나시기는 만나시었다.  
 c. 선생님이 영희를 만나셨기는 만나셨다.

위에서 동사 반복의 변이형들은, 핵어말(head-final) 구조에서, 동사가 이동한 후 그 흔적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에서도 술어가 반복된 것으로 다루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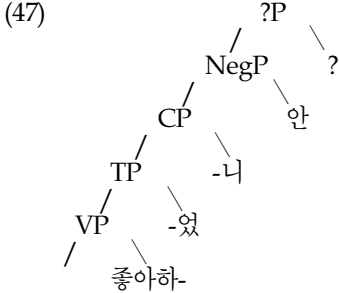
그러나 (1a', 5b)와 (46)사이의 술어반복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차이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46)과는 달리 (1a', 5b)에서는 술어의 어간 및 뒤 따르는 굴절어미들이 Mood 표지까지 모두 (예,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vs. \*좋아 안 좋아했니) 반복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성형이 된 술어복합체가 반복되기 위하여는 구구조표지상의 최상위 마디, 흔히 CP, 위의 부정어구의 핵인 안으로 또는 그 위의 다른 기능범주 핵

---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이 절의 뒤에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선 위 (ia)의 뒤에 나타나는 부정형 술어는 이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ib)에서 보듯이 부가의문문은 선행하는 진술문을 부가적으로 다시 부정하여 형성되는 의문문이다. 그러나 우선 (ia)에서 보듯이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부가의문문처럼 ‘예/아니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술어와 부정술어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는 점이 부가의문문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뒤의 부정형 술어 부분을 후보층어로 보았을 때 선행절로 간주되는 절이 의문문이라는 것도 부가의문문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ib)에 해당하는 국어의 부가의문문은 아래의 예들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 (ii) a. 철이가 영희를 좋아해, 안 그래? (그래, 누가 아니래.)  
 b. 철이가 영희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야, 전혀.)

으로 다시 상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핵어말 구조에서 국어의 부정소가 흔히 V와 T사이 VP 위에 위치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관점과 상반되는 것이다. 더욱 핵어말 구조는 (22)의 다양한 어순변이, 특히, 술어가 문미에 오지 않는 어순 변이를 다루는 데는 거의 속수무책이다.



4.2 SVO 가설: 핵어선 구조

이제 단일절 분석을 추구한다면 남은 대안은 핵어선(head-first) 구조를 채택해 보는 것이다. 다시 (1)의 예들을 어떻게 이 구조에서 유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 이에 골절이 좀 더 풍부한 술어복합체를 포함하고 있는 (1a')의 문장을 예로 들어,

(1) a'.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그 도출을 간략하게 예시해 보이려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정한다 (Lee 2009):<sup>15)</sup>

(48) Top--Foc--T--v(--Neg)--M--Asp(--Hon)--V

아래 (49b)에서 흔히 시제소로 간주되기도 하는 -었은 여기서는 상적 (aspectual) 요소로 간주 하며,<sup>16)</sup> (49d)에서 부정소 안은 NegP의 지정어(Spec)에 있다고 본다:<sup>17)</sup>

15) Foc: Focus, T: Tense, M: Mood, Asp: Aspect, Hon: Honorific.  
 16) 국어의 -었과 같은 요소들이 시제적(tesnse) 요소인지 아니면 상적(aspectual) 요소인지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상요소로 취급한다 (양정석 2009의 구체적 논의 참고).  
 17) 여기서는 지면상 별도의 논증 없이 국어에 NegP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참고, 예, Lee 1996:296-297). 현 논의가 가정하는 핵어선 구조에서 부정소 안이 동사복합체를 형성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NegP의 지정어에 있다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한 심사자가 우려하는 \*좋아했나 안이 유도되는 것도 피할 수 있다. 관련 논의는 (22) 아래에 연속된다.

- (49) a. [VP 좋아하- [DP 이 옷]] ==> Merge Asp  
 b. [AspP -었 [VP 좋아하- [이 옷]]] ==> Merge M(ood)  
 c. [MP -니 [AspP 좋아하-었 [좋아하- [이 옷]]]] ==> Merge Neg  
 d. [NegP 안 [MP 좋아했-니 [좋아하-었 [좋아하- [이 옷]]]]]  
 ==> Merge v, Neg-procliticization (안-접어화)  
 e. [vP 너 [v 좋아했니] [NegP 안-좋아했-니 [좋아하-었 [좋아하- [이 옷]]]]]  
 ==> Move Obj  
 f. [vP [이 옷] [vP 너 [v 좋아했니] [안-좋아했-니 [좋아하-었 [좋아하-  
 [아-옷]]]]]] ==> Move Subj  
 g. [TopP 너는 [FocP [이 옷] [TP... [[vP [아-옷] [너 [v 좋아했니] [안-좋아했-  
 [좋아하-었 [좋아하- [아-옷]]]]]]]]]]  
 h.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위의 각 도출의 단계는 병합(Merge)과 이동(Move)과 같은 당연하고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간단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22)의 다른 어순들도 핵이동, NP-이동 및 필요한 잉여소(remnant) 이동을 적용하면 다 유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22h-1)의 부정-긍정 술어의 순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요구된다.

- (22) h. \*너 밥 안 먹었니 먹었니?  
 i. \*너 안 먹었니 밥 먹었니?  
 j. \*너 안 먹었니 먹었니 밥?  
 k. \*안 먹었니 먹었니 너 밥?  
 l. \*안 먹었니 너 밥 먹었니?

먼저 부정소 안이 항상 술어 앞에 붙어오는 것으로부터, NegP의 지정어 위치에서 안이 뒤의 술어에 후향접어화(procliticization) 된다고 본다. 이제 위의 (49d,e)에서 부정소 안의 접어화에 의해 형성된 동사복합체 안-좋아했니가 상위의 좋아했니를 넘어가야 (22h-1)의 어순이 유도된다. 이것은 다른 핵을 넘어가는 핵이동이므로 최소성(minimality)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부정소 안이 통사부에서 접어화를 겪지 않는다면, NegP 지정어 자리에 있는 안과 후행하는 핵에 위치한 좋아했니는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은 불가능 하게 된다.

현 분석은 (4)와 (5)의 예들에서 보이는 비문법성을 자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 (4) a.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안 좋아했니?  
 b.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하니?  
 c.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1a')
- (5) a. \*너는 이 옷 좋아 안 좋아하니?  
 b. \*너는 이 옷 좋아 안 좋아했니?  
 c.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안 좋아?  
 d. \*너는 이 옷 좋아했니 안 좋아?

(49)의 유도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어복합체가 이동한 후 하위의 복사물이 그대로 (부정소 안과 함께) 반복되는 것이므로 두 술어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 분석 하에서는 핵어말 구조를 가정하는 쌍절 분석을 할 때 역행삭제/역행대명사화를 적용해야만 하는 문제도 사라진다.

한편 논의하는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 등위접속에 의해 형성된 쌍절이 아니라면 다음에서 보이는 쌍절의 특성을 여하히 포착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 (50) a. [너 이 옷 좋아하니] [너 이 옷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c. [너 순희 좋아] [너 순희 안 좋아]?  
 d. [영희 예쁘니] [영희 안 예쁘니]?

먼저 (50)의 예들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동일 요소들이 반복하여 나타나므로 현 단일절 분석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동 후 복사물이 음성적으로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관찰 되듯이 동사구내 주어가 상위의 주어자리로, 또는 목적어가 상위로, 이동하고 난 후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는데, (50)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 (51) a. [너 종종 [너 영희 만나니]]?  
 b. [너 영희 종종 [너 영희 만나니]]?

다만 (50)나 (51)에서 동일한 요소들이 중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어색 하기는 하나, 이들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으로 (50b)를 핵어선 구조를 가정하는 현 단일절 분석 하에서 어떻게 유도되는지 예시해 보이겠다.

- (52) a. [VP 먹- [DP 밥]] ==> Merge Asp  
 b. [AspP -었 [VP 먹- [밥]]] ==> Merge M(ood)  
 c. [MP -니 [AspP 먹-었 [떡- [밥]]]] ==> Merge Neg  
 d. [NegP 안 [MP 먹었-니 [떡였- [떡- [밥]]]]]  
 ==> Merge v, Neg-procliticization (안-접어화)  
 e. [vP 너 [v 먹었니] [NegP 안-먹었니 [떡였 [떡- [밥]]]]] ==> Move Obj  
 f. [vP [밥] [vP 너 [v 먹었니] [안-먹었니 [떡였- [떡- [밥]]]]]]  
 ==> Move Subj  
 g. [TopP 너 [FocP [밥] [Foc 먹었니] [TP 너 [[vP [밥] [너  
 [v 떡였너] [안-먹었니 [떡였 [떡- [밥]]]]]]]]]]  
 h. 너 밥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한 가지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51)와 같은 예에서 동일한 요소가 동일절 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속조건 C의 위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 분석이 이동의 복사이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모면할 방법은 있다. 즉 여기서 이동 후 뒤에 남아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복사물을 (종래의 NP-흔적) 대용사(anaphor)로 취급하는 것이다 (Hornstein 2001의 관련 논의 참고)<sup>18)</sup> 실제로 국어에서 결속조건 C의 위반이 허용되는 예들이 실증된다 (Lee 2009):

- (53) a. 철이는 철이밖에 모른다.  
 b. 철이는 [철이가 옳다고] 하고 영화는 [영희가 옳다고] 한다.

그래서 국어에서 결속조건 C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위에서처럼 하위의 철이나 영화가 대용사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결속조건 C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 (54) \*그는 철수밖에 모른다.

따라서 이동 후 뒤에 남아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복사물을 대용사(anaphor)로 취급하는 것이 그리 턱없는 제안은 아닌 듯하다.<sup>19)</sup> 아래에 반복한 (27)과 같은 예들도 후행절에서 주어

18) 위의 (49, 52)의 유도과정에 보이는 이동은 NP-이동으로 종래에 NP-흔적을 대용사로 취급한 적도 있다.  
 19) 다만 Hornstein (2001)에서처럼 (53a,b)에서도 NP-이동이 포함된 것인지는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NP-이동이 의미역 위치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줄고에서는 (53)에서와 같은 일부 현상 자체로부터 동일한 요소가 반복되는 경우 후행하는 요소가 대용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취하겠다. 또한 상위 복사물이 동일한 하위 복사물을 성분통어

나타나지 않으므로 (55)에서처럼 음성적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7) a. 너 이 옷 좋아하니 이 옷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c. 너 순희 좋아 순희 안 좋아?  
 (55) a. 너 이 옷 좋아하니 너 이 옷 안 좋아하니?  
 b. 너 밥 먹었니 너 밥 안 먹었니?  
 c. 너 순희 좋아 너 순희 안 좋아?

#### 4.3 선택 의문운용자 이동과 섬효과

앞의 제 2 절에서 관찰했듯이,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에 섬효과(island effects)가 나타나 는 사실로부터 모종의 운용자 이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 (14) a. ??너는 [[너를 아는 모르는] 사람들을] 좋아하니?  
 b. ??너는 [[순희가 너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하는] 소문을] 들었니?  
 c. ??너는 [[내가 미역국을 먹고 안 먹은] 것을] 기억하니?  
 d. ??[내가 너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더 중요하니?  
 e. ??너는 [영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때문에] 조바심 났니?

그래서 이 운용자는 선택의문운용자이며 통사부에서 이동한다고 제안 한다. 이 운용자는  $Op_Q$ 로 나타내며, 긍정술어 또는 부정술어를 그 범위로 취한다.<sup>20)</sup> 그래서 다음의 예들에서  $Op_Q$ 가 CP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C와 지정어-핵 관계에서 필요한 자질 점검을 하고, 그 범위 (scope)를 취한다고 본다.

- (1) a. 너는 이 옷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b. 너는 가니 안 가니?  
 c. 너는 이 옷 좋아 안 좋아?  
 d. 순이는 예뻐 안 예뻐?

내포절에서는 이  $Op_Q$ 가 내포절 내의 C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

(c-command)하지만 후자가 이제 대응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순선형화공리(LCA) 적용시 별 문제가 없음을 아울러 밝힌다.

20) 이와 유사하게 Huang (1982:283)은 중국어에서 [+A-not-A]가 LF에서 양화사인상(QR)을 한다고 제안 했다.

- (11) a. [그녀가 딸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불분명하다.  
 b. [그녀가 아침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불분명하다.  
 (12) a. [내가 너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b. [네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이동은 섬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섬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의문운용자의 설정은 논의 대상인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 의문사구 의문문(wh-question)과 공통된 성질을 보이는 점으로부터도 정당화된다. 다음을 보자:

- (56) a. 나는 [영희가 번테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안다.  
 b. 나는 [영희가 무엇을 먹는지] 안다. (무엇 ‘what’)  
 (57) a. 너는 [영희가 번테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아느냐?  
 b. 너는 [영희가 무엇을 먹는지] 아느냐? (무엇 ‘what’)

(56a)에서 [긍정-부정 술어]는 내포절을 그 범위(scope)로 취하며, (56b)에서 의문사구 무엇 ‘what’도 역시 그러하다. (57a)에서 [긍정-부정 술어]는 주절을 그 범위로 취하며, (56b)에서 의문사구 무엇 ‘what’도 역시 그러하다. (57a)의 의문문은 상대가 아는지 묻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번테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대답이 “아니요” 이라면, 그 의미는 상대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번테기를 안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57b)의 의문문이 상대가 아는지 묻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무엇을 ‘what’ 먹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의문사구(wh-phrase)의 이동처럼 선택의문운용자의 이동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 다만 (14)에 나타나는 섬효과의 문법성의 정도를 보면 이 이동이 통사부에서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4 의문사와 부정극어의 부재

제 2 절에서 (18b,c)를 통해 보았듯이,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의문사구(wh-phrase)와는 양립할 수 없다.

- (18) b. \*너 뭐 먹었니 안 먹었니? (뭐 ‘what’)  
 c. \*누가 미역국 먹었니 안 먹었니? (누가 ‘who’)

이에 대해 앞에서 의문사구 의문문은 뭐 ‘what’나 누구 ‘who’에 해당하는 대상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술어에 대하여 양단간에 선택을 종용하는 ‘술어반복 선택의문’의 맥락에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앞의 소절에서 국어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의문운용자 Op<sub>Q</sub>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의 C에는 의문사구(wh-phrase)를 점검할 자질이 없다고 한다면 (18b,c)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 부정극어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도 관찰하였다.

- (17) a. \*너 아무것도 먹었니 안 먹었니? (아무것도 ‘anything’)  
 b. \*아무도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아무도 ‘anyone’)

이에 대해 앞에서 위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은 먹는 대상이나 먹는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를 함의하지 않는 부정극어 *아무것도나 아무도*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위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C가 그 지정어 자리에서 의문운용자 Op<sub>Q</sub>와 점검 관계를 갖는다면 부정극어를 인허할 부정소는 실상은 없는 셈이다. 왜냐하면 ... *먹었니 안 먹었니* ...와 같은 술어반복형에서 부정어 *안*은 말하자면 선택의문운용자 Op<sub>Q</sub>의 외현적 구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어의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을 새로 소개하고 이 구문이 ‘예/아니오 의문문’이나 *혹은*으로 연결되는 보통 쌍절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선택의문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반 선택의문문’에서 유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별도의 구문이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였다. 특히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에 대하여 ‘일반 선택의문문’에 적용되는 쌍절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 구문이 보여주는 다양한 어순변이는 이 분석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신 단일절 분석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정되어 왔던 국어의 기본 어순에 대한 SOV 가설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근래 일각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SVO 가설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이 선택효과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선택의문운용자의 이동이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지정어-핵-보어의 범어적 SVO 기본 어순을 제안한 Kayne(1994)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에 따라 핵매개변인(head parameter)을 없애 연산상의 복잡성(computational complexity)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SOV 가설에 입각한 국어의 구구조 형성이나 술어복합체의 형성 이론에 불가피 새로운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양정석. (2008). 한국어 시간요소들의 형태통사론. *언어*, 33, 693-722.
- 최기용. (2003). 한국어와 핵이동: 종결형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13, 119-142.
- Baltin, Mark. 2006. Extraposition. *The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II*, 237-271.
- Chomsky, Noam.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a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ung, Daeho. (2009). An elliptical coordination analysis of the right dislocated construction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 1-23.
- Chung, Daeho. (2010). Left node raising as shared node rais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0, 51-71.
- Fox, Danny and Jon Nissenbaum. (1999). Extraposition and scope: A case for overt QR. In Sonya Bird, Andrew Carnie, Jason D. Haugen, and Peter Norquest (Eds.), *Proceedings of the Eighteen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pp. 132-144). Somerville: Cascadilla Press.
- Hagstrom, Paul. (2006). A-not-A question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1, 173-213.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ing.
- Hornstein, Nobert. (2001). *Move! A minimalist theory of construal*. Oxford: Blackwell.
- Huang, James C.-T.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Kayne, Richard.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oopman, Hilda. (200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syntactic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36, 601-635.
- Lee, Jeong-Shik. (1996). Verbal morphology in Korean. In H. Ahn, M. Kang, Y. Kim, and S. Lee (Eds.), *Proceedings of 1996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Morphosyntax in generative grammar* (pp. 287-298). Seoul: Hankuk Publishing.
- Lee, Jeong-Shik. (2007a). Deriving SOV from SVO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4, 109-129.
- Lee, Jeong-Shik. (2007b). LCA, linearization, and phasehood. In *Proceedings of the 2007 Fall Joint Conference b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The Society of Modern Grammar, and The English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102-119.

- Lee, Jeong-Shik. (2008a). Non-vacuous object movement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3, 229-250.
- Lee, Jeong-Shik. (2008b). Notes on right dislocated construction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 47-68.
- Lee, Jeong-Shik. (2008c). Minimizing spell-out material in the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52, 213-240.
- Lee, Jeong-Shik. (2008d). Externalization out of pha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 87-110.
- Lee, Jeong-Shik. (2008e). Verb repetition construction IV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8, 633-653.
- Lee, Jeong-Shik. (2009). A verb-initial single clause analysis for right-dislocated constructions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57, 127-157.
- Lee, Jeong-Shik. (2010). The SVO hypothesis: A case from LNR and RNR. In *Proceedings of Spring 2010 Joint Conference held by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and The Joongwo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121-129.
- Nunes, Jairo. (2004). *Linearization of chains and sideward movement*. Cambridge, Mass.: MIT Press.
- Ross, John Robert.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Park, Myung-Kwan. (2009). Right node raising as conjunction reduction fed by linearization. *Language Research*, 45, 179-202.

## 이정식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63-850-6873

이메일: jslee@wonkwang.ac.kr

Received: 7 April, 2010

Revised: 22 June, 2010

Accepted: 25 June, 2010